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K-칩스법' 중소기업보다 저세율... 감면액도 연간 3조원 넘어

정부 주도로 통과한 반도체 세액공제, 통칭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세금감면액도 정부가 주장한 2.5조원에서 3조원을 뛰어넘는다는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자체 분석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심의한 'K-칩스법' 감면 추정액 19조6859억원에 감면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2022년의 경우 11조원 신청, 감면액은 7200억원 수준이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세금감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데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율에 머물러 있는 두 기업이 'K-칩스법' 감면을 받으면 세법상 최대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하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러한 지나친 세액공제는 재계의 최저한세 폐지 요구를 촉발해 더 큰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국세청, 불법사채업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탈탈 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사채업자에 제공된 자산의 국고 귀속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단속을 하면 없어지다가 조금 취약해지면 독버섯처럼 나온다"며 "국세청,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경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 장부를 들여다 보더라도 당장 칼을 들이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안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이러한 특별 지시에 "불법 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며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히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이차전자 투자 활성화해야

기획재정부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자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자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 배터리 3사에 전해액을 공급하는 오정강 엔켐 대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은 전시(戰時) 상황"이라며 "산업 간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차전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현행 제도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정안을 도입하면 사실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과연 배터리 산업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